

글로벌 바이오 기술교류회 · GBC 오픈 포럼 개최

전북테크노파크, 유럽 진출 발판 마련... 전북 바이오기업 글로벌화 가속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5일 원주 스마트농생명오픈랩에서 '글로벌 바이오 교류회 및 GBC 오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바이오 기업의 유럽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교류회에서는 KIST 유럽연구소와 함께 유럽시장 진출 로드맵을 설명하고, 공동 R&D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GBC(Global Bio-Technology Collaboration Center,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연구원 권용준 책임이 참석하여 기술상담을 진행하고,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 입주 혜택 및 절차를 안내와 유망 바이오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참여기업의 기술 수요에 기반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5일 원주 스마트농생명오픈랩에서 '글로벌 바이오 교류회 및 GBC 오픈 포럼'을 개최했다.

한 1:1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KIST 유럽연구소가 보유한 독성평가, 체외시험 등 전문 기술과 전북특별자치도의 IPX(기술수요연계서비스)를 연계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하고 공동 연구 개발 가능성도 함께 모색했다. 이번 행사에는 △아노를 △케어사이드 △인살리코젠 △포도라픽스 △한풍제약 △바이엘티 △제이앤에이치바이오테크 △한소야제약 △아베디텍 △엔파케이 등 10개 바이오기업이 참여해 기술 및 입주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유럽 공동 연구와 GBC 활성화를 기반으로 도내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ASEAN, 신재생 에너지 안전 공동보고서 발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는 최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에너지센터(ACE)와 공동으로 '태안민국 아세안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법률과 기술기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전기안전공사와 ACE가 2024년 공동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의 성과다. 한국형 신재생발전설비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안전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작됐다. 총 5개 장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국가 전기안전 체계와 운영방식 △우리나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와 주요 법령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KESC)을 기반으로 신재생 전원별 안전관리방법 △아세안 회원국의 역사적 배경과 전기안전 기준 △ASEAN 회원국 경제 수준에 따른 안전인식 격차 해소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ACE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의 안전관리 체계를 우리나라의 체계와 비교·분석해, 한국 전기안전공사와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회원국에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공저작물로 배포되어 ACE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국문 번역 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하영 사장은 "이번 보고서는 공사와 아세안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전기안전분야 ODA사업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농기계, 해외 진출 가능성 넓히다

현지 맞춤형 협력으로 전북기업 해외 진출 고두보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2024년 핵심 수출지원 정책으로 운영한 '찾아가는 통상터'가 또 한번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경진원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농업기계 전문기업인 현대농기계와 우즈베키스탄 농민협의회, 에티오피아 BKG 그룹이 농업기술 및 정보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첨단 농업기술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지 맞춤형 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 그리고 ODA를 활용한 신규 협력사업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양국과의 실질적인 기술 협력 및 농기계 수출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MOU가 경진원 소속 통상터 위원이 직접 해외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귀국 이후 현대농기계와의 협력체계를 연계하여 이끌어낸 성과라는 점이다. 단순한 일회성 상담을 넘어 기업 현장 컨설팅부터 실무교류,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 가능성을 확장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MOU 체결 외에도 에티오피아 및 우즈베키스탄 바이어들이 현대농기계를 포함한 도내 농기계 기업들과 1:1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전북 농기계 기업들은 이번 상담을 통해 새로운 해외 판로 개척의 실마리를 찾는 동시에, 바이어의 1:1 상담 및 현장 통역 지원 등을 통해 자

사 제품의 경쟁력과 현지 시장 진입 가능성을 적극 타진하며 향후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협력 기회를 가졌다. 현대농기계 박옥란 대표는 "통상터가 바이어 발굴부터 맞춤형 전략수립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어 이번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준 통상터와 전북도의 산·관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지 농업기관 에티오피아 BKG 그룹 관계자도 "한국의 선진 농기계 기술과 농업 노하우를 도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마련되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군산제일신협, 시니어 조합원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군산제일신협(이사장 박창길)이 6월부터 7월까지 총 6개 단계를 순회하며 총 400여 명의 어르신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산제일신협은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 조합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번 순회교육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박창길 이사장과 강인기 총무부장이 강사

로 나섰다.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최근 지능화 된 보이스피싱의 사례와 이에 빠르게 대처하는 예방법 등을 안내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6월 10일 소망환경(노인일자리 사업단체)을 시작으로 △6월 19일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6월 28일 산소연안봉사단 △6월 30일 그린코러스 여성합창단(군산YMCA) △7월 10일 일신

사니어교실(일신교회) △7월 28일 군산시니어클럽(군산시민예술촌) 등에서 교육이 진행됐으며, 총 400여 명의 어르신 및 청소년이 교육에 참여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사기 수법과 피해 예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도내 기업의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지역 ESG 추진협의회'를 출범 시켰다.

경영 체계적 지원 · 협력 기반 강화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 ESG 추진협의회 출범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25일 도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지역 ESG 추진협의회'를 출범 시켰다. 전북지역 ESG 추진협의회는 전주상공회의소 전대식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ESG 관련 지자체,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를 갖은 협의회는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도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방안 논의 △ESG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 공유 등에 관해

논의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은 "전북지역 ESG 추진협의회가 도내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규제와 공급망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전대식 위원장은 "이번 출범하는 ESG 협의회와 도내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ESG와 관련된 애로해소 및 더욱 많은 정보와 지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미래 신산업 글로벌 R&D 기반 강화

전북TP, IVADO · QRIAQ 등 AI · 항공우주 기관과 협력 구체화

(재)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핵심 R&D연구기관들과 '전북자치도 글로벌 R&D 협력 추진단'을 구성하여 27일부터 8월 3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2025년 제15회 한국-캐나다 과학기술대회(CKC)'에 참여해 캐나다의 세계적인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손잡고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강화에 나선다. '전북자치도 글로벌 R&D 협력 추진단'은 이번 CKC의 성공적인 참여를 위해 인공지능(AI) 응용 및 항공우주 분야 등을 중심으로 20건이 넘는 구체적인 공동 R&D 협력 과제를 사전에 준비해왔다. 추진단의 핵심 목표는 전북의 주력 및 미래 신산업과 연계된 R&D 분야에 서 캐나다 우수 연구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R&D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CKC 참석을 통

해 AI·바이오·에너지 등 전북도 핵심 산업의 다양한 세션 참석을 통한 국내·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북 R&D 공동 연구부스 운영 △전북도-IVADO AI응용분야 세션 구성 △캐나다의 세계적 항공우주기업 방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캐나다의 대표 전략산업인 AI 응용 분야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MIAL 등 세계적인 연구소·기업을 방문하며, 오는 31일에는 캐나다의 대표적 AI 연구기관인 IVADO와 공동 세션을 운영하여 도내 인공지능 및 산업 응용 분야의 글로벌 R&D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의 항공우주 대표기관인 QRIAQ와의 연구 미팅을 통해 이차전지, 항공우주 등 소재 및 산업응용 분야에 대한 미래 산업 비전을 공유하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